

23.11.2025

온 누리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가톨릭 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가톨릭 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가톨릭 성가 174> 사랑의 신비	<가톨릭 성가 39> 하나 되게 하소서

제 1독서 | 사무엘 하권 5,1-3

화답송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좌)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우)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
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 2독서 | 콜로새서 1,12-2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
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23,35-43

오늘의 묵상 |

오늘 말씀은 '참된 왕권'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제 1독서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윗에게 와서 '주님
께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
니다. 다윗의 왕권은 힘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계약, 순종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하느
님의 도구였습니다.

제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라 부르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
고 그분을 향해 존재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는 지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사랑의 통치입
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왕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
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며 회개한 죄인을 구원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는
참된 권위입니다. 우리도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
가 아니라 용서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35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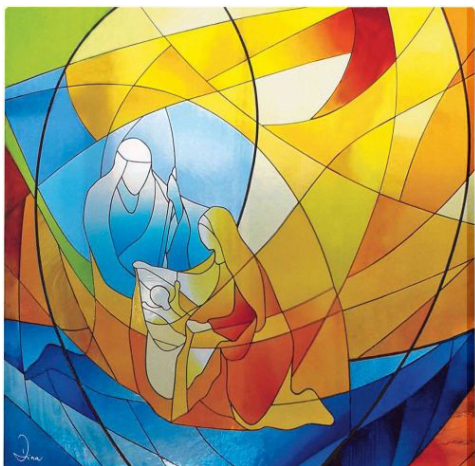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자렛 성가정에서 발견하는 가정의 의미 - Fr.한민택 바오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랑의 기쁨>이란 문헌에서 부부간의 인간적 사랑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전해 주십니다. 한 대목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 저는 상대방의 사랑의 진가를 알려면 그 사랑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라거나 참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현세적이라고 하여도 그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113항)

가정과 혼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 사랑의 한계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이기에 나약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실히 사랑하려고 애쓸 것이므로, 이 인간적 사랑

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사랑을 새로운 눈, 곧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적인 기준으로 과거를 비판하거나 부정하기보다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나자렛 성가정을 바라볼 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이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자렛 성가정은 위기 속의 가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미혼모로 오해받아 파혼의 위기를 겪을 뻔했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이방인의 고장 갈릴래아의 나자렛에 정착해야 했고, 유년 시절 예수님을 잃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가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도전을 피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순례하는 가정'이었으며,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하느님의 손길은 도전과 문제를 회피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한가운데서' 직면할 때 작용하십니다. 이러한 시선을 통해 우리 각자의 가정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시련 등은 개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약하고 한계 지어진, 위기 속의 가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 신앙, 성소가 싹트고 자라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각인되었나요?

시편은 그 모든 역사가 녹아 있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한 시대 한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대개 연대도 저자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인 시편 안에는,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와 그 안에서 만났던 하느님의 모습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150편의 시편들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시편집의 제목은 "찬양가들의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집이 온통 기쁜 찬양의 노래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에는 오히려 탄원시편의 수가 찬양시편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편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기도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 우리가 체험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찬양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시편들만 모아 놓은 책이라면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기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종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탄원시편과 찬양시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시편에서 기도자는 하느님을 부른 다음 자신의 처지를 하느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가 자신만을, 자신의 고통만을, 또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길을 하느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시편 42,6). 하느님께 부르짖는 탄원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과 나 사이의 결합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 갑니다.

한편 찬양시편에서는 흔히 첫머리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이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 줍니다. 창조의 놀라움,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자애 등 여러 가지가 하느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시편집이 삶의 고통을 잊지 않기, 그 책에 들어 있는 찬양시편들은 삶의 굴곡 속에서 멈추어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는 순간들이 됩니다.

개별 시편들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에 '다윗'이라는 머리글이 붙어 있고 전통적으로는 시편집 전체를 '다윗의 시편'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신학적인 의미에서이지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시편의 저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거나 노래를 지었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전해지고 그가 전례를 정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다윗이 훌륭한 임금으로서 메시아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들 대부분은 다윗 시대보다는 늦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신학적으로도 이미 유배를 겪은 흔적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를 알 수 없어도, 분명 저자가 있기는 했겠지요. 그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하느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것이고, 슬픔 속에서 하느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기도가 되어 갑니다. 마치 어떤 계기로 노래 가사를 쓰거나 곡을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되듯이,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이들의 것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인 시편들이 하나의 책으로 완성된 것은 아마도 기원전 2세기 무렵 일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200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바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그 기도를 바쳤던 사람과 지금의 우리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공감대, 그것이 시편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니다. 시편에서 저자는 자주 자신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시편 40,18). 시편은 주님께 피신하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입니다. 시편이 얼마나 진실하게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어느 만큼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비례합니다. 탄원이 찬양보다 더 많은 구약의 시편집은 분명 태평하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힘으로 삶을 헤쳐갈 수 없음을 아는 약한 이들의 기도, 훌륭하고 좋은 것 역시 내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오직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매달리고 기쁨 가운데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편의 기도들은 하느님을 임금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22장4절에서는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의 이런저런 힘들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시편을 노래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칩니다"(시편 145,13).

공지 사항

1. 대림시기 자선 바자회

교회는 대림 제 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며,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자선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선 바자회를 갖고자 합니다.

- 11월 30일(대림 1주) & 12월 7일(대림 2주):

<미사 후, 성당 교육관에서 바자회 물품 모으기>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물품이나, 쓰지 않고 있던 물품들을 있다면 성당 교육관으로 기부 부탁드립니다.
(사목회에서 바자회 물품들을 분류 및 정리)

- 12월 14일: 미사 후, 자선 바자회 (간단한 먹거리)

- * 도네이션 박스 혹은 cdf계좌로 자유로이 기부
- * 모인 기부금은 전액 기부 (기부금 사용내역은 추후 주보를 통하여 공지드리겠습니다)

2. 미사 전례 - 신앙 고백 기도문 변경 안내

대림 1주 (11월 30일)부터 미사 중 바치는 신앙 고백 기도문을 ‘사도신경’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변경하여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림시기 고해성사

대림시기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께 겸손되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고해성사를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려고 일어서신다. 주님은 공정의 하느님이시다.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이사야 30,18)

| 여정 ‘시즌 6’ - 영적 독서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 ‘기도의 체험’ : ~ 71p
-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 ~ 80p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1월 23일)	요한반
다음주 (11월 30일)	루카반

| 봉헌금 & 교무금 | (11월 15일 ~ 11월 21일)

봉헌금	\$ 194			
교무금	\$ 620			
구민식	김남호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권묘순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故 권정열 형제님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